

경 제 학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에듀윌 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2일 시행
지방직 공무원 시험 총평

○ 단원별 출제 분포도

구분	단원	내용	문항 수
미시경제 (8문항)	경제학의 기초		
	수요공급이론과 응용	[계산] 조세 자증손실 가격탄력성 종량세 전가와 귀착	3
	소비자이론		
	생산자이론		
	생산물시장이론	독점 단기균형 [계산] 램지역탄력성 법칙	2
	요소시장이론 소득분배		
	후생경제학과 시장실패	[계산] 외부성과 최적생산량	1
	미시경제 신영역		
거시경제 (9문항)	국민소득이론		
	소비 및 투자함수론		
	화폐금융이론	[계산] 통화승수	1
	IS-LM이론	조세인상 효과 유동성함정과 기대인플레이션	2
	총수요-총공급 이론	공개시장매입정책과 AD곡선	1
	재정과 금융정책		
	실업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영향 [계산] 소비자물가지수 실업개요(개념, 측정) 인플레이션 조세	4
	경제변동 및 경제성장	[계산] 솔로우 모형 황금률 내생적성장이론	2
국제경제	국제무역이론	[계산] 비교우위이론 헤셔-올린 정리	2
	국제금융이론	[계산] 이자율평가설 IS-LM-BP	2
합계			20

○ 총평

1. 전반적으로 쉬운 난이도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계산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한다는 압박을 감안하면 실수를 할 가능성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85점 정도

에서 90점을 받았다고 하면 무난하게 시험을 치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실수가 없었다면 1문제 정도(솔로우 모형 계산)가 변별력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2. 증가하는 계산문제

여전히 계산문제는 절반 이상 출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략 전체 20문제 중에서 8문제 정도 출제되었다. 전체적으로 쉬운 문제로 출제되었지만, 솔로우모형의 황금률 수준의 소비율을 구하는 문제 정도가 난이도를 위한 문제로 보인다.

3. 거시 비중의 증가

전체적으로 미시와 거시의 비중은 절반씩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번에는 미시가 6문제, 거시가 14문제 출제되었다. 따라서 실전에서는 미시와 거시의 비중이 꼭 반씩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미시, 거시, 국제로 나누게 되면 전반적으로 30%씩 할당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방직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뿐이고 국가직이나 다른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는 미시와 국제가 포함된 거시가 반씩 출제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 수험 대책

1. 기본기를 탄탄하게, 핀셋 공식 암기는 지양

경제학 시험은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한다. 경제학은 비법이나 공식 하나로 핀셋 대비는 할 수 없다. 이제 **“제대로 시대”**가 도래했다.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실전과 가까운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기본이 탄탄하면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이 완성되어야, 이 단계를 넘어 다음 단계로 비약할 수 있는 것이다.

2. 계산문제의 비중 증가에 대비

최근 등장한 계산문제의 증가는 경제학의 표준화된 형태가 되었다. 경제학의 수식과 그래프를 두려워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는 좀 불편한 소식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미 도래한 새로운 출제 패러다임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객관식 교재의 계산문제들만 따로 모아 반복해서 숙달시킬 필요가 있다. 아마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따로 계산문제와 더불어 그래프들을 모아 많은 연습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끄는 대로 믿고 잘 따라가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길어지는 문제의 길이와 난이도

경제학의 난이도를 끌어 올리는 주된 요인들 중의 하나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7급과 9급 경제학 문제들은 짧고 단편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장의 길이도 길어지고 있으며, 박스형 선택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빠르게 볼 수 있는 속독의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파편식의 요약정리보다 문장체로 서술되어 있는 교재나 지문이 길게 출제된 여타 기출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풀어볼 필요가 있다.

✓ 혹시 공부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에듀윌 게시판 혹은 메일(sunkujang@hanmail.net)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과거의 기출문제 혹은 동영상 해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YouTube 경제학짱박사](#))에서 각종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문 1. 어떤 상품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직선이며, 상품 1단위당 5,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자. 세금의 부과는 상품에 대한 균형거래량을 200개에서 100개로 감소시켰으며, 소비자잉여를 450,000원 감소시키고, 생산자잉여는 300,000원 감소시켰다. 세금부과에 따른 자중손실은?

- ① 250,000원
- ② 500,000원
- ③ 750,000원
- ④ 1,000,000원

[정답] ①

[출제포인트] 자중손실 계산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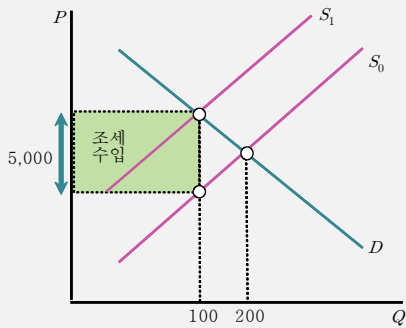
조세부과를 통한 자중손실의 크기는 조세부과로 인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에서 조세수입을 뺀 값이 된다. 즉

자중손실 = (소비자잉여 감소분 + 생산자 잉여감소분) - 조세수입

문제에서 정부의 조세수입은 상품 단위당 5,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거래량이 100개라고 했으므로 조세수입은 500,000이 된다.

조세부과로 인한 소비자 잉여 감소는 450,000이고, 생산자 잉여 감소는 300,000이다. 따라서 조세부과로 인한 자중손실의 크기 = (450,000+300,000)-500,000=250,000이다.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문 2.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조세를 인상하고, 중앙은행은 기존의 통화량을 변함없이 유지한다면, 통상적인 기울기를 보이는 IS-LM 모형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 ① 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감소한다.
- ② 소득은 감소하고 이자율은 증가한다.
- ③ 소득과 이자율 모두 감소한다.
- ④ 소득과 이자율 모두 증가한다.

[정답] ③

[출제포인트] 재정정책 효과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IS-LM모형에서 정부가 조세를 인상하면 IS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LM곡선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문 3.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매입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이자율은 (A)하고 투자지출이 (B)하여 총수요 곡선이 (C)으로 이동한다. (A) ~ (C)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 지은 것은?

- | (A) | (B) | (C) |
|------|-----|-----|
| ① 하락 | 감소 | 오른쪽 |
| ② 상승 | 증가 | 왼쪽 |
| ③ 하락 | 증가 | 오른쪽 |
| ④ 상승 | 감소 | 왼쪽 |

[정답] ③

[출제포인트] 공개시장정책(국채매입효과)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통화량은 증가하고 그 결과 이자율은 A(하락)한다. 그 결과 투자는 B(증가)하게 되어 총수요곡선은 C(우측)로 이동하게 된다.

문 4.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확실하게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은 노동자보다 기업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
- ②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간 차이와 같게 된다.
- ③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어려우면 장기계약 체결이 어려워진다.
- ④ 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은 고정 연금 수령자에게 불리하다.

[정답] ①

[출제포인트] 인플레이션 효과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 ①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경우에는 노동자와 기업은 기대에 반영하여 별다른 비용을 초래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구두창비용이나 메뉴비용같은 부담은 지게 된다.
- ②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인플레이션율만큼 명목이자율에 반영된다. 그 결과 피서가설에 의해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예상인플레이션율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 ③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한 명목이자율을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게 되어 장기계약이 체결되기 어렵게 된다.
- ④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와 고정 연금 수령자는 받아야 할 금액이 작아지게 되거나, 받은 고정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불리해진다.

문 5. 작년에 쌀 4가마니와 옷 2벌을 소비한 영희는 올해는 쌀 3가마니와 옷 6벌을 소비하였다. 작년에 쌀 1가마니의 가격은 10만 원, 옷 1벌의 가격은 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쌀 가격이 15만 원, 옷 가격이 10만 원으로 각각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산정방식을 적용할 때, 작년을 기준으로 한 올해의 물가지수는?

- ① 120
② 160
③ 175
④ 210

[정답] ②

[출제포인트] 소비자물가지수 계산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소비자 물가지수는 라스파리에스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_P = \frac{P_1 Q_0}{P_0 Q_0}$$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정리하면 작년의 쌀과 옷의 가격은 (10, 5)이고, 수량은 (4, 2)이다. 올해의 쌀과 옷의 가격은 (15, 10)이고, 수량은 (3, 6)이다. 이를 보기 좋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_0(4,2)$	$Q_1(3,6)$
$P_0(10,5)$	50	60
$P_1(15,10)$	80	105

소비자물가지수인 라스파리에스 물가지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L_P = \frac{P_1 Q_0}{P_0 Q_0} \times 100 = \frac{80}{50} \times 100 = 160$$

문 6. 다음은 영국과 스페인의 치즈와 빵 생산에 관련된 자료와 그에 대한 주장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개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		40시간 일할 때 생산량	
	치즈	빵	치즈	빵
영국	1시간	2시간	40개	20개
스페인	2시간	8시간	20개	5개

- ㄱ. 영국에서 생산하는 치즈 1개의 기회비용은 빵 2개이다.
 ㄴ. 영국에서 생산하는 치즈 1개의 기회비용은 빵 1/2개이다.
 ㄷ. 스페인에서 생산하는 치즈 1개의 기회비용은 빵 1/4개이다.
 ㄹ. 영국에서 생산하는 빵 1개의 기회비용은 치즈 2개이다.
 ㅁ. 영국에서 생산하는 빵 1개의 기회비용은 치즈 1/2개이다.
 ㅂ. 영국은 빵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고, 치즈 생산에는 비교우위가 있다.
 ㅅ. 영국은 빵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스페인은 치즈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① ㄱ, ㄷ, ㄹ
② ㄱ, ㅁ, ㅂ
③ ㄴ, ㄷ, ㅅ
④ ㄴ, ㅂ, ㅅ

[정답] ③

[출제포인트] 비교우위 판단과 계산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문제에서 제시된 숫자는 1개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40시간 일할 때의 생산량에 대한 정보이다. 이를 기회비용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비용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옳은 지문은 (ㄴ), (ㄷ), (ㄹ), (ㅅ)이 된다.

	기회비용	
	치즈	빵
영국	1/2	2
스페인	2/8	4

- (ㄱ), (ㄴ) 영국에서 치즈 1개의 기회비용은 빵으로 나타내면 1/2이다.
 (ㄷ) 스페인의 치즈 1개의 기회비용은 빵으로 나타내면 2/8 (=1/4)이다.
 (ㄹ), (ㅁ) 영국에서 생산하는 빵 1개의 기회비용은 치즈로 나타내면 2개이다.
 (ㅂ) 영국은 빵과 치즈 모두에서 스페인에 대해서 절대우위에 있다. 그리고 빵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ㅅ) 영국은 빵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스페인은 치즈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문 7.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화의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 ②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재화의 가격이 변하더라도 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총수입에는 변화가 없다.
- ③ 재화의 수요가 탄력적일 때,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총지출은 증가한다.
- ④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임의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정답] ④

[출제포인트] 가격탄력성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 ① 재화의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작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이 변화할 때 총수입은 변함이 없게 된다.
- ③ 재화의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에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총수입(소비자의 총지출)은 증가한다.
-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직선인 경우에 가격이 높고 수량이 작을수록 탄력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수요곡선 상에서 탄력성은 다르다.

문 8.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업보험제도가 강화될수록 자연실업률은 낮아진다.
- ② 생산가능연령인구는 5,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명, 취업자는 2,880명이라면 실업률은 4%이다.
- ③ 구조적 실업의 주원인은 임금 경직성이며, 임금 경직성은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효율적 임금 때문에 발생한다.
- ④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

[정답] ①

[출제포인트] 실업 개관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 ① 실업보험제도가 강화되면 사람들이 좀더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탐색하기 위해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자발적인 실업은 증가하게 된다. 자발적인 실업만 존재하는 경우를 자연실업률이라고 하므로 실업보험제도 강화는 자연실업률을 높이게 된다.
- ②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산가능연령 인구가 5,000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2,000명이므로 경제활동인구는 3,000명이다. 이때 '경제활동인구=실업자 수+취업자 수'가 성립하므로 취업자가 2,880명이므로 실업자는 120명이다. 따라서 실업률은 $\frac{120}{3,000} \times 100\% = 4\%$ 이다.
- ③ 구조적 실업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임금의 경직성 때문이다. 임금이 경직적인 이유는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효율적 임금 등이 있다.
- ④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인 실망 노동자들이 증가하게 되면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하게 된다.

문 9. 다음은 유동성 함정에 처한 경우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A) ~ (C)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 지은 것은?

한 국가가 유동성 함정에 처한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의 (A)을 가져와서 실질이자율의 (B)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 IS-LM 모형의 (C)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 | | (A) | (B) | (C) |
|------|-----|-----|-----|
| ① 상승 | 하락 | IS | |
| ② 상승 | 하락 | LM | |
| ③ 하락 | 상승 | IS | |
| ④ 하락 | 상승 | LM | |

[정답] ①

[출제포인트] 유동성 함정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유동성함정에서는 경기가 매우 침체된 상황으로 LM곡선은 수평의 형태인 경우이다. 이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수평인 LM곡선이 우측이동해서 국민소득 증가 효과는 없다. 그러나 통화량의 지속적인 공급은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야기시켜 명목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실질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피셔가설에 의하면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기대인플레이션율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IS곡선이 우측이동하게 되어 총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문 10. 현재 완전경쟁시장에서 사적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은 350이며, 사적 한계비용은 $MC = 50 + 10Q$ 이다. 한편 이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가 입는 피해는 생산량 1단위당 100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기업이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생산하기로 한다면 생산량의 변동은? (단, Q 는 생산량이다)

- ① 10단위 감소시킨다.
- ② 10단위 증가시킨다.
- ③ 20단위 감소시킨다.
- ④ 20단위 증가시킨다.

[정답] ①

[출제포인트] 외부성과 최적생산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 문제의 정보 정리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면 $PMC = 50 + 10Q$, 생산량 1단위당 100의 오염물질 피해가 발생하므로 $SMD = 100$ 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이 350이므로 $P = D = 350$ 이다.

■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적 최적생산량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적인 최적생산량은 $P = PMC$ 이므로 $350 = 50 + 10Q$ 에서 $Q_p = 30$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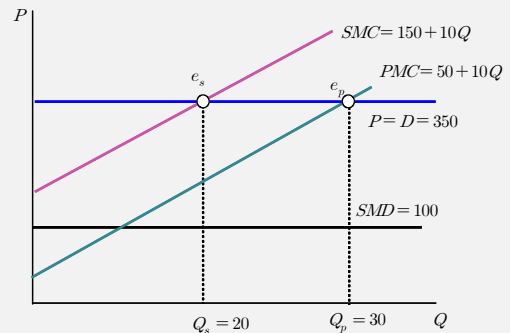
■ 외부성을 고려한 사회적 최적생산량

사회적 한계비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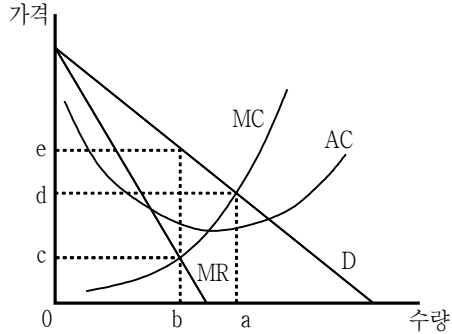
$$\begin{aligned} SMC &= PMC + SMD \\ &= (50 + 10Q) + (100) = 150 + 10Q \end{aligned}$$

이 성립한다. 따라서 외부성을 고려한 사회적인 최적생산량은 $P = SMC$ 이므로 $350 = 150 + 10Q$ 에서 $Q_s = 20$ 이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문 11.그림은 독점기업의 단기균형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MR은 한계수입곡선, D는 수요곡선, MC는 한계비용곡선, AC는 평균비용곡선이다)



- ① 단기균형에서 이 기업의 생산량은 a이다.
- ② 단기균형에서 이 기업의 이윤은 $b \times (e - c)$ 이다.
- ③ d는 균형가격을 나타낸다.
- ④ 균형생산량 수준에서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

[정답] ④

[출제포인트] 독점균형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 ① 단기균형에서 생산량은 $MR=MC$ 인 b점에서 결정된다.
- ② 단기균형에서 이윤은 $(P-AC) \times Q$ 이다. 문제에서 제시된 식은 $(P-MC) \times Q$ 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균형생산량은 b에서 결정되고, 이에 대응하는 가격은 수요곡선상에 위치한 e점이 된다.
- ④ 독점시장에서 균형생산량은 $MR=MC$ 에서 결정되므로 b점이다. 이때는 밑에서 올려다보면 $MR=MC < AC$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12.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하여 중립적인 경우,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000 원이고, 1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이 미국에서는 1%, 우리나라에서는 2%일 때, 국가 간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1년 후 1%로 하락한다.
- ② 투자자가 1년 후 환율이 1달러당 1,01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③ 미국의 이자율이 1년 후 2%로 상승한다.
- ④ 투자자가 1년 후에도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답] ②

[출제포인트] 이자율평가설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국가 간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 조건은 두 국가 간 환율을 고려한 이자율이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이자율평가설 문제라고 볼 수 있다.

$$r = r_f + \frac{e_{t+1}^e - e_t}{e_t}$$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대입하면 $2\% = 1\% + \frac{e_{t+1}^e - 1,000}{1,000}$ 이므로 1년 후의 예상환율은 1달러당 1,010원이 된다.

문 13. 경제주체들의 환율 예상이 정태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단, 국가 간 자본이동이 완전하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 ①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자국화폐는 평가절상된다.
- ② 자국화폐는 평가절하되고 실질소득은 증가한다.
- ③ 실질소득은 변화가 없고 자국화폐는 평가절상된다.
- ④ 환율은 변화가 없고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정답] ①

[출제포인트] 먼델-플레밍 모형(IS-LM-BP)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고재변금'의 원리를 적용하면 금융정책이 효과적이고 재정정책은 무력하다. 문제에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긴축적 금융(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LM곡선이 좌측이동하게 되면 국내균형점은 BP곡선 상방에 위치해서 국내이자율이 해외이자율보다 높게 된다. 그 결과 달러가 유입되므로 환율은 하락(자국화폐평가절상)하고, 그 결과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어 IS곡선은 좌측 이동한다. 따라서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이자율은 다시 국제이자율과 같아진다.

문 14. 헷서-올린(Heckscher-Ohlin) 모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본이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한다.
- ② 생산요소들은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국가 간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 ③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의 국제무역이 발생해도 생산요소의 가격은 불변이다.
- ④ 교역 대상 상품들의 국가 간 생산기술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정답] ③

[출제포인트] 헷서-올린 정리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 ①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적인 상품에 우위를 가지게 되어 수출하게 된다.
- ② 생산요소들은 국가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상품만 이동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 ③ 헷서-올린 정리에서 노동과 자본은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국제무역이 발생하게 되면 생산요소의 가격은 변화하게 되어 균등하게 된다. 만일 자본집약적인 국가의 경우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frac{w}{r}$ 는 높지만, 국가간 상품 이동으로 인해서 $\frac{w}{r}$ 는 낮아지게 된다.
- ④ 헷서-올린 정리에서는 두 국가 간의 기술수준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문 15. 종량세(specific tax) 부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재화의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 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 ② 종량세가 부과된 상품의 대체재가 많을수록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조세 부담은 작아진다.
- ③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일수록 종량세 부과로 자중손실이 크다.
- ④ 종량세 부과가 균형거래량을 변동시키지 않는다면 종량세 부과는 자중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답] ②

[출제포인트] 조세의 전가와 귀착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 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서 무한대인 경우에는 공급자의 힘이 엄청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하나도 조세를 부담하지 않고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 ② 상품의 대체재가 많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있어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부과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작아진다.
- ③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면 조세부과로 인한 거래량의 감소가 크게 되어 자중손실이 커진다.
- ④ 종량세 부과시 균형거래량의 변화가 없다면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수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는 자중손실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문 16.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가 세금부과나 차입 등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 ② 화폐발행권자는 통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주조차익(seigniorage)을 얻는다.
- ③ 인플레이션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화폐를 보유한 모든 경제주체이다.
- ④ 인플레이션 조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경제전반에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완화에 기여한다.

[정답] ④

[출제포인트] 인플레이션 조세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 ①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세금부과나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돈을 찍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채무자인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채권자인 화폐보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 ② 화폐발행권자는 통화량을 증가시켜 화폐의 액면가치를 제조비용보다 높게 만들어 그 차액만큼을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를 시노리지라고 한다.
- ③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자는 화폐를 보유한 모든 경제주체에게 돌아간다. 즉 화폐 보유에 과세하는 셈이 된다.
- ④ 인플레이션 조세는 화폐를 보유한 중산층의 부를 감소시킨다. 대신 부동산과 같은 대체수단을 많이 보유한 고소득층은 실물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

문 17. X, Y 두 종류의 재화가 있다.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7이고, Y재 가격이 1% 상승할 때 Y재 수요량은 1.4% 감소한다고 한다. 램지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Y재 세율이 10%일 때, X재의 최적 세율은?

- ① 0.5 %
 ② 5 %
 ③ 7 %
 ④ 20 %

[정답] ④

[출제포인트] 램지의 역탄력성 법칙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램지의 역탄력성 조세원칙으로 이는 독점기업의 3급 가격차별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 다시말하면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에 높은 가격(조세)을 부과하고,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에 낮은 가격(조세)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rac{T_X}{T_Y} = \frac{\varepsilon_Y}{\varepsilon_X}$$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varepsilon_X = 0.7, \varepsilon_Y = 1.4, T_Y = 0.1$ 이다.

램지의 가격설정 방식에 대입하면

$$\frac{T_X}{0.1} = \frac{1.4}{0.7}$$

따라서 $T_X = 0.2$ 인 20%가 된다.

문 18. 한 국가의 총생산함수는 $Y = AL^{\frac{2}{3}}K^{\frac{1}{3}}$ 이고, 1인당 자본량의 변동은 $\Delta k = (1-b)y - \delta k$ 라고 할 때, 생산물 시장의 균형조건이 $Y = C + I$ 이며, 소비함수는 $C = bY$, $0 < b < 1$ 인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황금률 수준의 소비율 b 는? (단, Y 는 총생산량, L 은 인구(노동량), K 는 자본량, A 는 기술수준, y 는 1인당 생산량, k 는 1인당 자본량, C 는 소비, I 는 투자, b 는 소비율, δ 는 감가상각률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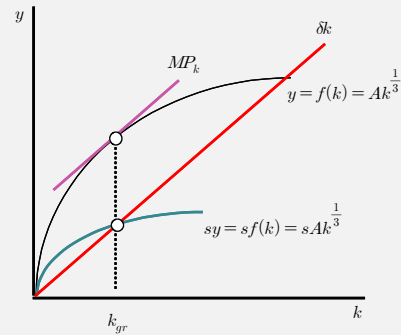
- ① $\frac{1}{9}$
 ② $\frac{1}{3}$
 ③ $\frac{4}{9}$
 ④ $\frac{2}{3}$

[정답] ④

[출제포인트] 솔로우 모형의 황금률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솔로우 모형에서 황금률이란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균형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 수준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

$$MP_K = \delta \dots \dots \dots (\text{식1})$$

(식1)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rac{1}{3} Ak^{-\frac{2}{3}} = \delta \dots \dots \dots (\text{식2})$$

또한 균형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량의 변동인 $\Delta k = 0$ 가 되어야 한다.

$$\Delta k = (1-b)y - \delta k = 0 \text{ 이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

$$(1-b)y = \delta k \dots \dots \dots (\text{식3})$$

(식3)에 주어진 정보를 대입하면 $(1-b)Ak^{\frac{1}{3}} = \delta k$ 가 되고 양변을 k 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b)Ak^{-\frac{2}{3}} = \delta \dots \dots \dots (\text{식4})$$

결국 (식2)와 (식4)가 모두 성립해야 하므로 한계소비성향 $b = \frac{2}{3}$ 가 된다.

문 19. 내생적 성장이론의 다양한 시사점이 아닌 것은?

- 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양(+)의 외부효과와 음(-)의 외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다.
- ②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술진보는 지식의 축적이므로 지대추구행위를 하는 경제주체들에 의하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 ③ 교육에 의하여 축적된 인적자본은 비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④ 노동력 중 연구개발부문의 종사자는 기술진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생산량 증가에 기여한다.

[정답] ③

[출제포인트] 내생적 성장이론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 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양(+)이 외부성과 음(-)의 외부성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다. 애써서 사례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풍토병 등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단기적 이윤이 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별로 없는 탈모해결, 미용, 애완견의 우울증 치료약에 많은 투자를 한다. 이처럼 이윤극대화 추구 기업의 제약품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성향이 다른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②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술진보는 지식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해 특허를 얻게 된다면 많은 이윤을 획득하는 대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 된다. 이런 대박을 경제적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
- ③ 교육에 의해 축적된 인적자본은 자신의 지식이 개인의 몸에 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배제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적자본의 형태에 따라서 경합성이 될 수도 있고 비경합성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 기술이 체화된 숙련된 경험은 노동자의 몸에 체화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가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게 되면 인적자본도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노동력 중에서 연구개발 부문에 종사하는 경우 암묵적인 지식이 경험으로 몸에 체화되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문 20. A국가의 경제주체들은 화폐를 현금과 예금으로 절반씩 보유한다. 또한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0%이다. A국의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440만 원 증가시켰을 때 A국의 통화량 변동은?

- ① 800만 원 증가
- ② 880만 원 증가
- ③ 1,100만 원 증가
- ④ 4,400만 원 증가

[정답] ①

[출제포인트] 통화승수와 신용승수 계산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통화승수는 $m = \frac{k+1}{k+z} = \frac{C/D+D/D}{C/D+z/D}$ 이다.

문제에서 $M = C + D$ (단, M 은 통화량, C 는 현금, D 는 예금)에서 현금과 예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frac{C}{D} = k = 1$ 이 된다. 문제에서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했으므로 $z = 0.1$ 이다.

주어진 정보를 식에 대입하면 승수는 $m = \frac{1+1}{1+0.1} = \frac{2}{1.1}$ 이 된다.

A국의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440만원 증가시킨다면 A국의 통화량은 승수배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frac{2}{1.1} \times 440 = 800$ 만원이 된다.